해제: 이야기되는 인생사 연구의 일독 비교

레만의 '의식분석'을 중심으로

김광식

동아시아 일상학으로서의 민속학 구축을 목표로 한 일상과문화연구회는 지금까지 아파트, 미디어, 생활개선운동 등을 중심으로 일상 및 생활에 기반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이와 더불어, 본고 「이야기되는 인생사 연구의 일독 비교」에서 열거된 바와 같이, 6호 이래 『일상과 문화』에는 레만을 중심으로 한 '일상의 이야기'를 둘러싼 논문이 게재되었다.

본고는 기존의 논의를 명료하게 정리하고, 레만의 '의식분석'을 중심으로 독일과 일본의 패전 후의 인생사(생애사) 연구를 비교 검토하였다. 한국에서는 자세히 소개되지 않은 독일과 일본의 구비문학 및 인생사 연구의 전개도 흥미로우며, 젊은 연구자의 문제의식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세한 논의는 본고를 참고바라며, 해제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 용어의 일부를 보족하고자 한다.

먼저 '세켄바나시(世間話)'라는 용어다. 세켄(世間)이란 활동・교제의 범위 안의 사회 및 그 사람들을 이른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서사성이 강한 구비문학 즉 설화를 민담, 전설, 신화로 나누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무카시바나시(昔話), 전설, 세켄바나시로 나뉜다. 세켄바나시 연구에서는 생활담, 도시전설, 현대전설, 현대민화, 소문담 등 다양한 용어가 병용된다(남근우, 「일본 구승문예 연구의 동향과 과제」, 『구비문학연구』 15, 2002, 199쪽). 본고의 주석1, 2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일본의 세켄바나시는 오랫동안 구전되었다고 믿어지는 전승연구에서 벗어나 근현대의 새로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었지만, 논자와 저작에 따라 미묘한 온도차가 존재한다. 근현대 일상의 이야기를 다루려는 혁신성보다는 세켄바나시의 집합적 측면 즉 유형성 및 정형성에 중점을 두는 경향도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비판적으로 직시하면서 일본 사회학의 인생사 연구와 레만의 연구를 비교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레만의 '이야기 형(語りの型)'의 '형(型, Form)'은, 단순하게 형식 또는 형태 등으로 번역할 수 있겠다(레만은 안드레 요레스(Jolles, André)의 저작 『Einfache Formen(단순한 형식, 일본어 역 메르헨의 기원メールヒェンの起源)』을 참고했다). 본고에서는 구비문학 연구의 화형 분류와 공통되는 면을 강조하였고, 문맥상 '유형'이 보다 적절한 부분이 존재해 일괄적으로 '이야기 유형'으로 번역하였다. 전체적 번역에 있어 가급적 원문에 충실하려 노력했으나, 가독성을 위해 문장을 일부 재구성하였고, 번역 단계에서 저자의 교시를 받았음을 밝힌다.